



이주환 작 '무등산-Unbeatable colors'

### 요코하마에 광주 알린다

시립미술관 '빛의 도시, 광주'전... 12월 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오는 12월4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벵크아트1929(BankART1929)에서 '빛의 도시, 광주'전을 개최한다.

벵크아트1929는 지난 1929년 요코하마에 설립된 옛 제일은행 건물을 비롯해 옛 우편청고, 향만창고 등 유휴시설을 시가 민간에 무상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복합미술문화공간이다.

2014동아시아문화도시인 광주를 요코하마에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광주의 역사와 특성을 빛을 이용한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전시다. 김영태, 박상화, 신도원, 이이남, 이주환 등 5명의 광주작가들이 광주의 풍경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 영상과 사진 등 미디어아트를 요코하마에 선보이게 된다.

이주환 작가는 수년째 한 장소에서 무등산의 모습을 렌즈에 담고 있는 작가로, 아날로그적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무등산-Unbeatable colors' 등 작품들을 선보인다.

고대 명화와 근대 걸작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이이남 작가는 '도포-역사 다시 쓰기' 등을 통해 광주의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예술적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박상화 작가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영상을 이용한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광주의 잊혀져가는 모습을 중첩된 투명 스크린 위에 투사시키고, 김영태 작가는 광주의 소외되고 어두운 구석에서 발견한 빛을 통해 도시를 성찰한다.

신도원 작가는 추상회화의 한 장르인 옹포르멜 형식의 회화를 빛과 결합한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준다. /김경민기자 kki@

### 인류학·신학 관점의 남녀평등

김정희 '교회의 여성' 펴내



인류학적·신학적 관점에서 남녀평등을 들여다본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김정희 전남대(윤리교육과) 명예교수가 펴낸 '교회의 여성'(오피스사랑)은 여성 해방은 남성을 닮는 게 아니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김 교수는 "평등이란 이름으로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모방함으로써 성(性)의 고유성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며 "남자와 유사하게 되는 것이 해방된 여성은 결코 아니며 남성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여성의 진정한 자유실현은 아니다"라고 설파한다.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김 교수는 뜻한 바 있어 방향을 전환,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다. 1979년 한국 여성으로 최초 신학박사가 되는데 이 때 지도교수가 요셉 라칭거 교수로 훗날의 교황 베네딕토 16세다. 은총의 침묵속에서의 '마리아', '여성의 갈 길은 어디인가', '전환기의 새로운 인간학 모색'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과 어린이문화원이 공동 제작한 소리동화 '부케티노'.

(사진제공=아시아예술극장)

## 영상 없어도 '침대 위' 꼬마 관객 소리동화에 '귀 쫑긋'

### 소리동화 '부케티노' 프레스 리허설

스토리텔러 들려주는 인물들 상상 무대 밖 '노이즈 메이커'가 만드는 괴물 계단 오르는 소리에 '화들짝'

음향효과 사실감 키워 전달력 높여야 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 제작 22일까지 예술극장...7세이상 관람가



모든 감각을 사로잡는 특별한 어린이 공연!

김은 막이 처진 공간으로 들어서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다. 때론 한 나무 바닥 대신 바스락거리는 작은 자갈을 밟고 들어섰다. 캄캄한 오두막집이다. 한 가운데 동화책을 든 나레이터가 앉아 있다. "이제 곧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어서 침대로 올라가세요."

1층과 2층에 놓인 침대는 모두 50여 개.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째째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덮고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어린 관객도 낯선 경험이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13일 예술극장 리허설room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과 어린이문화원이 공동 제작한 소리 동화 '부케티노' 프레스 리허설이 열렸다. 이탈리아 아티스트 그룹 소치에타스 파엘로 산치오가 1995년 첫 선을 보인 '부케티노'는 프랑스, 독일 등 전세계에서 공연됐으며 대만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는 이번이 초연이다.

'부케티노'는 '신데렐라'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동화다. 가난한 살림 때문에 숲속에 버려진 7형제가 막내 부케티노의 지혜로 괴물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침대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부케티노'는 스토리텔러가 다양한 목소리를 구사하며 혼자 이야기를 이끌었다. 여기에 관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노이즈 메이커'가 공연장 밖에서 다양한 음향효과를 만들어냈다. 숲속에서 낙엽 밟는 소리, 덩치 큰 괴물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이 모든 게 바깥에서 노이즈 메이커가 만들어내는 벽의 진동과 음향효

과를 통해 전해졌다.

이날 관객은 초등학교 2년생들. 어릴 때부터 온갖 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한 세대다. 화려한 볼거리 하나 없이 '귀를 활짝 열어놓고' 오롯이 청각에만 의지하는 공연이라 지루함을 없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의 몰입도는 의외로 높았다. 나레이터가 목소리를 줄일 때면 귀를 쫑긋 세우며 집중하고, 괴물이 등장하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릴 때면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아이들 머리속에는 자신들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작은 극장'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레이터 선정이 가장 힘들었다"는 연출자의 말처럼 이 작품에서는 스토리텔러의 역할이 지대하다. 극단 '여행자' 소속 배우 박미영은 아빠, 엄마, 괴물, 괴물 아내, 부케티노를 비롯한 일곱 아이들의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극을 이끌었다.

공연 후 꼬마 관객들의 반응은 좋았다. 다른 동화도 공연됐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 답했다. 일단 형식면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미지 없이 소리로 상상해야 하는 터라 음향 효과의 사실감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일부 효과의 경우 생생함과 크기가 작아 관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필요할 듯하다. 공연의 마무리도 아쉬웠다. 재미난 오두막집에 초대받은 아이들이 여운을 갖고 동화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갑작스레 집에 돌아가라는 느낌을 받는 듯했다. 학부모들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많았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한 작품들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연령대에 맞는 동화를 소재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관객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침대 위에 누워서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는 건 묘한 기분이었다. 아이들 반응을 살피러 영거주침대에 앉아서 동화를 들을 때, 비스듬히 누울 때,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쓰고 편히 누울 때, 똑같은 동화를 듣는 느낌이 전혀 달랐다. 아이들을 위한 작품 뿐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이야기도 한번 좀 만나고 싶었다.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던 모습을 떠올리며 작품을 제작했다. 나레이터와 각종 음향 효과를 통해 아이들은 자기만의 상상을 하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즐기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보는 극이 아니라, 듣는 극이라 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부케티노'의 연출 키타라 귀디는 "한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 동화든지 관심이 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기작도 일본 동화계 소재다. 텍스트는 무한하다."고 말했다.

'부케티노'를 제작한 아시아예술극장은 2년간 '부케티노'의 판권을 보유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고정 콘텐츠로 삼는 것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 극장에 작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7세 이상 관람가능하며 공연은 오는 22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410-37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순아울렛**  
**밀레·라푸마 OPEN!!**

**COLDZERO** 빈틈없이, 온기를 잡았다.  
COLDZERO TECHNOLOGY

**Lafuma Effect**

**MILLET** 061-371-7337 010-8288-3579  
**Lafuma** 061-375-8998 010-3618-9615

OPEN AMR00 / CLOSE PLUS00... (문의: 061-371-7337)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대산프리모) 1층

대산프리모가발